

시인의 마을

저 푸른
하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코로나에 구멍 난 심장은
알알하게 찌르는 것처럼 아
프고 아프다
목마름이 얼마인지
넘치는 마스크는 강이 되어
흐른다
오늘도, 가쁜 숨은 간절함이
되어
대답 없는 정거장만 늘어난
다
멈추지 않는 기도처럼
넘치고 넘치는 한계가 버거
운 하루다

-대단한 놀이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다시 와도 예전과 같을까?
-오긴 오는 것일까?

그렇게, 그렇게, 또,
누구에게는 낭떠러지에 선
마음으로
그 누구에게도 소소한 희망의
불씨다
푸른 하늘 십자가 너머엔
오늘도
소리 없는 네 박자 응원가만
가득하다



기도

시시를 담다

기운은 영하의 쌀쌀함이 느껴진다. 그리 춥지도 않다. 딱, 기분이 좋을 만큼 상쾌한 공기가 좋다. 일상이 되어 버린 마스크가 오늘도 함께다. 걸기에 집중한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걷는 가족 단위의 시끄러움이 나쁘지 않다.

햇살이 눈에 부신 이후, 빈 의자가 눈에 들어왔다. 무작정 걸터앉아 마스크에서 눈을 분리한다. 나뻐도 수변에는 나뻐있잖아? 없다. 연다 타다? 뭘로 들어오는 이 신선한 공기가, 딱 하니 막혔던 실상을 뚫어준다. /목마름이 얼마인지 /넘치는 마스크는 강이 되어 흐르 /지 오래다. 그래서 /오늘도, /목마름은 간절함이 되고 /대답 없는 정거장만 늘어선다. /다시 와도 예전과 같을까 /오긴 오는 것일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처럼, 수많은 기도만이 되새김질 된다.

멈추지 않는 기도처럼, 넘치고 넘치는 한계가 버거운 하루다. 그렇게, 누구에게는 편안함으로 지리 잡는다. 또, 그 누구에게도 가련한 희망의 불씨가 우리 모두의 기도이지 않을까? 오늘도, 푸른 하늘 십자가 너머엔 소리 없는 네 박자 응원가만 가득하다. 코로나에 구멍 난 심장은 알알하게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아프다



박여범

영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독자제언

지난해 12월 4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덩크트럭에 의해 11살 정요한군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우회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인명피해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통계에 의하면, 2018년~2020년 3년간 우회전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전국에서 212명이 사망하였고, 1만 3000명이 부상하였다.

이러한 우회전사고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우 핸들이 좌측에 있어 우측의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월 공포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데 주요 골자는 첫째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운전자 우회전 더욱 주의... 교통사고 줄여야

의무'를 규정한 제27조 제1항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더 넓혀 더더욱 조심하라는 것이다. 즉,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거나 적색이어도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주변에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된다고 하여 '일시정지'를 의무화시켰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 시 운전자는 범칙금은 물론, 민·형사상 손해, 또 반복되면 보험료도 할증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

치된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피해자 중 어린이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나 어린이

이 보호구역 내에 진입하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후 천천히 출발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할 것이다. 운전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주의를 더욱 기울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7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들여서 더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기원주경철서소양파출소경위

전주매일 |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50-05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사설

완주 대표 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

전북 완주의 대표 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삼례읍 삼례역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삼례문화예술촌은 올해 개관 9주년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삼례문화예술촌은 올해 각종 행사를 선보인다. 이는 대중적 클래식 미술전시, 트렌드 미디어아트 그리고 지역 작가와 완주마을 공동체가 참여한다.

이미 지난 1월 18일 프랑스 인상파 화가인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의 작품을 담은 특별 기획 전시 '사계의 향연展 - 모네, 향기를 만나다'가 열리고 있다.

3월 31일까지 제1전시관에서 펼쳐지는 이 전시는 사계절 시리즈이다. 빛의 화가 모네의 대표작 '수련', '향기를 든 여인', '해돋이' 등 30여점을 소리와 향기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클로드 모네의 이야기와 시대적 배경, 작품 해설과 함께 각 작품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들을 컬러바 체험 공간에서 직접 향수를 만들 수 있다. 관람객들에게 명

작을 만나보고 추억의 향기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례문화예술촌은 향후 트렌드 미디어 파사드 컨텐츠 전시, 지역작가 및 완주 마을공동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완주 공예품 전시를 비롯해 뮤지컬·오페라·클래식 앙상블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게 된다.

완주군청 왕미너 문화관광과장은 "삼례문화예술촌이 명실공히 완주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승지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미 삼례문화예술촌은 역사와 현대를 아우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역을 선도하는 문화예술 마을이 되어 근현대사적 역사 공간의 의미를 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채로운 전시 컨텐츠와 공연으로 다시 찾는 관광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변함없이 삼례문화예술촌이 완주군민과 전북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예술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제5회 선학평화상 공동수상의 의미

제5회 선학평화상 수상자에 영국 옥스퍼드대 제너연구소 백신학 교수인 사라 길버트(59, 여) 박사와 세계백신면역연합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사라 길버트 박사는 보편 및 운송이 용이하고 저렴한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했다.

의료 여건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 수십억 명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라 길버트 박사는 백신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 182개국에 25억 회 이상을 공급했다.

그는 지난 25년간 니파, 라사,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 백신을 개발했다. 2000년 설립된 세계백신면역연합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백신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주도했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은 2020년 팬데믹 발발 직후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구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저개발 국가에도 공정하게 분배했

다. 현재까지 144개국에 10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했다.

한편 선학평화상재단은 2022 설립자 특별 공로상 수상자로 혼센(70.Hun Sen) 캄보디아 왕국 총리를 선정했다. 혼센 총리는 동남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리더십을 크게 발휘했다.

특히 '신통일한국 평화 체계'에 발맞춰 '한반도 평화 서밋'의 공동위원장을 맡아 활약한 공적이 크게 인정되었다. 2년마다 수상하는 선학평화상(鮮學平和賞)은 초인종·초종교·초국가 운동을 펼쳤던 고 문선명(文鮮明) 선생의 평화 사상과 유지를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선학평화상은 인권존중, 갈등화합, 생태보전 등 세 가치를 추구한다. '인권존중'은 빈민구호, 질병퇴치, 교육복지 문제, '갈등화합'은 분쟁해소, 종교화합, 한반도통일 문제, 그리고 '생태보전'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에너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